

# 국제화 측면에서 본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

하영석 | 계명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대학 국제화는 WTO 체제하에서 합의된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대학 교육의 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절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 I. 대학 국제화의 의미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교육환경 속에서 국제화를 통한 인적·지적 교류만이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최근 대학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대학 국제화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지식산업 사회에서 대학 국제화는 대학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동시에 국제화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교육수준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항목은 얼마나 많은 외국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들 대학에 몇 명의 교환학생을 보내거나 유치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외국인 학생이 등록하고 있는가? 또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강의과목(courses for foreign students : CFS)이 어떤 분야에 몇 개나 개

설되고 있는가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국제화의 지표는 대학 국제화의 양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대학 국제화 수준은 외형적인 지표를 통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외에 질적인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즉, 그 대학의 재학생이 국제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학문적인 도전을 받고 있으며, 국제화를 자기 계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교과과정과 학업과정이 외국대학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체계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제와 분위기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 당국의 국제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 행정 체계, 개방적인 문화형성에 기울이는 노력 등의 평가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 국제화는 대학

들이 전술된 양적·질적 국제화 수준을 토대로 얼마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는가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미래는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수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현황 분석과 함께 대학의 국제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 국제화의 지향점과 지원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한국 대학의 국제화 현황

### 1. 대학의 국제교류 현황

한국 대학들은 국제화의 중요성에 대해 눈 뜨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대학들과 활발한 교류협정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양방향의 균형적인 학생 파견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 학생을 외국의 협정체결대학의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것이 국제화 및 국제교류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선진국 대학들은 교환학생 수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해결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각 대학이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한편 대학 지원자의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도부터 국내 대학들은 지원율이 낮은 대학을 중심으로 안정된 재정 수입의 확보와 우수한 중국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아웃바운드 유학생 중심에서 인바운드 유학생 유치에 대한 다양한 대학별 전략이 수립되어 왔다. 특히 안정적인 우수 유학생의 확보를 위해 협정 체결 당사자 간에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제공하는 트위닝 프로그램(twinning program)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트위닝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공동의 신뢰 구축, 등록금 격차 문제 해결,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 유도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외국 대학과의 교류협정 건수를 보면, 2004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271개 대학이 5,743개의 외국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당 평균 21.2개의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2003년도에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의 수가 12,89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4년제 대학 등록생 수인 2,049,019명의 0.63% 수준이다.

2004년도 한국 유학생의 해외 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30.0%), 중국(12.6%), 호주(9.5%), 캐나다(7.1%), 뉴질랜드(7.1%) 등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환학생을 포함한 유학의 대상국이 제약적이며 쌍방 간 호혜적인 학생교환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교류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유학생의 선호 지역은 북미, 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국인 한국 유학생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의 장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 친화적이며 개방적인 대학 차원의 국제화 전략이 요구된다.

〈표 1〉 한국 유학생의 해외 국가별 분포

(단위 : 명, %)

국명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타	계
2003 (%)	49,047 (30.7)	14,058 (8.8)	18,267 (11.4)	17,339 (10.8)	15,775 (9.9)	9,870 (6.2)	35,547 (22.2)	159,903 (100)
2004 (%)	56,390 (30.0)	13,307 (7.1)	23,722 (12.6)	16,922 (9.1)	17,847 (9.5)	13,297 (7.1)	46,128 (24.6)	187,683 (100)
증감	7,343	-751	5,455	-417	2,072	3,427	10,591	27,780

\* UNESCO, Third Session of the Regional Follow-up Committee for the 1998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 Country Report, South Korea, 2005.

〈표 2〉 한국 내 외국 유학생 국가별 분포

(단위 : 명, %)

국명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	몽골	기타	계
2003 (%)	5,607 (45.5)	2,486 (20.2)	575 (4.7)	631 (5.1)	367 (3.0)	208 (1.7)	2,440 (19.8)	12,314 (100)
2004 (%)	8,960 (53.2)	2,418 (14.4)	725 (4.3)	693 (4.1)	458 (2.7)	356 (2.1)	3,222 (19.1)	16,832 (100)
증감	3,353	-68	150	62	91	148	782	4,518

\* UNESCO, Third Session of the Regional Follow-up Committee for the 1998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 Country Report, South Korea, 2005.

특히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학생의 비율이 1:11.2에 이른다는데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체계적인 학습 기회 제공, 영어 강의의 확대, 특성화된 트위닝 프로그램의 확대, 출입국 관리의 규제 완화 등 대학이 개방적인 환경하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대학 국제화 및 국제교류의 문제점

현재까지 한국 대학들이 외국 대학들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추진해 오면서 나타났던 문

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형식적인 교류 협정과 교류 대학의 수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국 대학들의 평균 협정체결대학 수가 21.2개에 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 교류 및 교수 교류, 현지 학기제, 공동 연구, 공동 및 복수 학위 등의 장기적인 교류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은 소수이며, 단기연수 등 대학 국제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교환학생 참여 비율이 전체 대학 등록생의 0.63%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직까지 학생교류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부분의 협정서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적인 확대가 반드시 대학 국제화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교환학생 수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협정체결대학 간 상호 호혜적인 교류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및 대학 쌍방 간 학생들 유치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많은 외국 대학들이 한국어와 한국학(Korean Studies)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대학의 학생들이 선진 외국 대학에 가지고 있는 관심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환학생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하계방학 중 개설되는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 체험 캠프, 한국학 하계대학 등의 개설을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단기연수나 현지 학기제 등을 통하여 일정 수의 교환학생 수를 확보함으로써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특정지역 집중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특정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국제 교류확대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국제대학(International School)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유럽지역의 변화 추세는 미국식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영어 강의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 집중된 관심을 유럽으로 돌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북유럽 및 동유럽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대학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 강의

과목 운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표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100개 대학에서만 중국 유학생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70~8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수학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교육기간이 끝나면 학부학생으로 정식 입학하여 다양한 전공을 한국 학생과 같이 수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교과목을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환학생들의 경우 그들을 위하여 영어 강의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소수의 교환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다. 따라서 외국인 교환학생의 경우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 경제 등 교양강좌 중심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 강의를 수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 번째로 외국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일치성의 부재를 들 수 있다. 21세기 글로벌 환경 및 지식정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국제적 표준을 갖추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유럽의 각국들도 전통적인 학제를 개선하여 유럽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대학 간 교류의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볼로냐 선언' 이후 국경 없는 대학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학점 평준화를 위해 '유럽 신용평점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각국 대학의 학위를 공동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대학들도 외국 대학들과 복수학위(dual degree)와 공동학위(joint degree)

등 트위닝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를 손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 및 공동학위의 경우 상대 대학들이 일부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격차 문제, 공용언어 문제, 학위인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여섯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한국어 교육 문제이다. 교환학생이나 정규 학부과정에 진학한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어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환학생이 그들의 체류 기간 동안 주로 영어 강좌를 수강하기 때문에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 특히 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한국어에 능통한 것이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강의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기간 체류하는 학생과 학부의 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구분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 Ⅲ. 대학 국제화의 지향점과 지원 방향

#### 1. 대학 국제화 추진 방향

교육부는 글로벌 지식산업 사회에서 국제화된 고급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인 대학교육의 틀 자체를 국제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국제화 정책을 수립하였다. 덧붙여 말하면 궁극적으로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방향하에서 국제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외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다양한 학문과 문화적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로 우수 외국 교수를 초빙하여 선진 학문을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04년 11억 8천 만원을 조성하여 56명의 우수한 외국인 교수를 국내 대학으로 초청하였다.

셋째로 경쟁력 있는 교육 분야의 콘텐츠를 외국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공유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학 및 경쟁력 있는 학문 분야를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로 'Study Korea Project'를 통해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0,000명을 국내로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유학 박람회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한국을 홍보하고 한국어 교육 확대와 영어 및 외국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교과목 확대를 계획 중에 있다.

다섯째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에 공동 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통하여 국내 대학들이 국제화된 교육과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부의 대학 국제화 추진 방향은 기본적으로 학생교류를 진작하고 외국의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외국 대학들과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의 개설을 통해 교육의 국제표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 2. 지원 방향

위에서 언급된 교육부의 추진 방향은 국내 대학들이 국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국제화 추진 방향에서 간과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어문학 및 국제학 분야에만 외국인 전임교수의 채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전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외국인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 유리한 전공과목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인 전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교수채용의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표준화된 교과과정의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어와 한국학의 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외국의 문화와 언어에 정통한 국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는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수월성이 뒷받침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됨으로써 한국어 확산과 한국어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한국학 기틀이 갖추어진 대학의 육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 국제화의 촉진을 위해 대학 내 모든 강좌를 영어로 개설하는 국제대학의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유럽지역이나 일본의 경우 모든 강의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국제대학들이 여러 곳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대학 국제화의 촉진을 위해 공동학위나 복수학위에 대한 구분을 없애야 한다. 외국 대학과 합의된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부의 기본적인 학위취득 요건과 공동과정 운영 요건만 갖추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위의 명칭을 선택·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공동학위와 복수학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학위를 제 공하는 대학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도록

대학 국제화 부문의 국제경쟁력은 그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구축과 개방화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우수 외국 교수의 초빙, 공동연구 환경 조성,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제의 도입 등은 국내 대학의 국제화와 그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동학위 참여 대학의 교수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 강의하는 것과 학생들이 외국에서 일정 기간 강의를 듣는 것에 큰 차이가 없지만, 전자의 경우는 공동학위가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는 복수학위만 가능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몇몇 소수의 국내 대학을 제외 하고는 오히려 공동학위 참여 대학의 졸업생이 복수학위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복수학위에 참여하는 외국 대학도 교육과정의 조정을 위해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표준

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의 부여는 학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많은 대학들은 줄어드는 입학 인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대학의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 지역으로부터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유학생 유치 목적 때문에 학부 입학 시 수강에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간과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학생들의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할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IV. 결 언

대학 국제화는 WTO 체제하에서 합의된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대학 교육의 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절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미래는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유학을 보내던 수준에서 'Study Korea Project' 등을 통해 유학생을 공격적으로 유치하며 교류를 촉진시키는 국제화의 중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 국제화 부문의 국제경쟁력은 그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구축과 개방화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우수 외국 교수의 초빙, 공동연구 환경 조성, 공동학위 또는 복수

학위제의 도입 등은 국내 대학의 국제화와 그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국제화의 방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대학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국내 대학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고 유연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요약하면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전공 과정 전임교수에 채용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확대가 요구되며, 이와 병행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의 운영을 통합하여 대학이 전략적으로 학위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국제화의 촉진을 위해 모든 강좌를 영어로 개설하는 국제대학의 설립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유학생들의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한국어 세계화 전략이 빛을 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하영석

한국해양대학 졸업 후 일등항해사로 실무 종사 하였고, 뉴욕주립대학에서 해운경영학 석사를,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통상학과 교수로 대외협력처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운물류학회 학술위원장, 대구광역시 물류정책위원, 대구경북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